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바퀴로 오신 태양신(神)



태양신이 땅으로 내려 오셨네

여덟 개 바퀴살은
완전함의 표상이네

바퀴살을 두 개 가진
동생들을 대동하고

빛이 필요한 곳
지혜가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비추려고
땅으로 내려 오셨네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태양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신(神)의 역할을 한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완전 무상(無償)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양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예나 지금이나 한 없이 고마운 존재다. 아주 오랜 옛날, 고대인들에게는 고마움을 넘어, 절대적인 경외(敬畏)의 대상이 되었다. 신(神)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빌게 되었을 것이다. 태양신은 어둠을 물리치고, 추위를 막아주며, 모든 존재들의 생명력이 되었다. 태양신은 큰 제단에도 모셔졌지만, 작은 바위틈에도 새겨져서, 백성들의 간절한 믿음의 귀의처가 되어 주었다.

태양신의 모습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 처음에는, 보여지고 느껴지는대로, 둥근 원형(圓形)과 빛살을 여러 형태로 그렸다. 그러다가, 빛살이 점차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간략해지거나 생략되어, 원(圓)과 십자가 형태로 단순화 되었다. 단순화 되고 절제된 문양들은, 현재 각 종교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표상으로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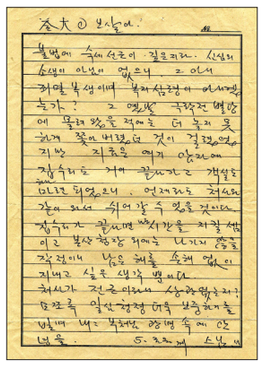
불교 경전 중에 〈대일경(大日經)〉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대일경〉의 주인공 부처님은 대일여래(大日如來)이다. 대일여래는 태양 부처님을 말한다. 일광여래(日光如來) 또한 같은 이름이고, 월광여래(月光如來)는 달 부처님을 말한다. 부처님의 높고 큰 지혜는, 생명의 근본인 태양에 비유되었고, 한량없는 자비심은 달에 비유되어, 해와 달은 부처님이 되었다. 해 부처님과 달 부처님의 높은 지혜의 빛과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세상 병고의 고통이 속히 멈추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⑤ 일타 스님 1

묵은 '미안함' 전해온 따뜻한 편지



대원성 보살아,

불법에 숙세선근이 깊은지라 신심의 소생이 아님이 없으니, 그 아니 죄멸복생(罪滅福生)이며 복지심령이 아니겠는가. 그 옛날 극락전 별당에 몰려왔을 적에는 더 놀지 못하게 쫓아버렸던 것이 걸렸었지만 지금은 여기 암자에 집수리도 거의 끝나가고 객실도 마련되었으니 언제라도 처사와 같이 와서 쉬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집수리가 끝나고 나도 시간을 지킬 셈이고 번산 청장 외에는 나가지 않을 작정이니 남은 해를 손해 없이 지내고 싶은 생각뿐이다. 처사가 전근이라니 상관없는지? 모쪼록 일심청정 더욱 보중하기를 빌며 내내 부처님 광명 속에 안녕을. 5월 그믐께 스님 서.

편지는 1976년 편지다.

1969년 여름, 처녀시절에 친구 두 명이 여름휴가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나는 바다가 보고 싶어 부산까지 내려온 친구들을 데리고 먼저 범어사(성수 스님이 주지로 계실 때)로 가서 스님을 뵙고 함께 차도 마시며 좋은 말씀도 들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통도사와 가천에서 과수원을 하신 스님을 차례로 찾아가 뵈었다. 친구들은 도회지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풍경과 좀처럼 가까이서 뵐 수 없는 스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아쉬움을 남기고 해인사 극락전으로 일타 스님을 뵈러 갔다. 처녀 셋이 연락도 없이(그땐 전화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다) 갑자기 간 것이다.

스님은 스님의 방 옆방을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오랜만에 모인 우리는 마음이 들뜬 나머지 밤이 늦도록 큰 목소리로 수다를 떨었다. 우리가 한참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일타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절집에선 9시면 모두 자야하고 새벽 3시면 일어나야 합니다"고 하셨다. 스님의 경책에 우리는 잠시 조용해졌지만 어느새 우리는 언제 그랬나 싶게 다시 수다를 떨었다. 지금 생각하면 스님께 너무 죄송스럽다. 얼마나 난감하셨을까. 더구나 아랫방엔 수산 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들이 계셨었는데 대책 없는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곤란하셨을까.

이튿날 스님은 전날의 일로 대중들에게 미안하셨는지 대중처소에 공양도 못가시고 불편해 하시면서도 우리를 굶길 수도 없어 안절부절 하셨다. 스님은 고민 끝에 시자스님을 큰절로 보내 쌀과 수저를 얻어오게 하여 등산용 버너로 밥을 짓게 했다. 스님은 가지고 계셨던 작은 고추장 한 병을 내시고 마당에 자란 도라지 몇 뿌리를 캐어 고추장에 무치셨다.

5명이 밥솥에 둘러앉아 도라지무침 하나에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잘 먹고 간다고 인사를 드렸을 때, 스님은 주변 스님들 보기 부끄러우셨는지 얼굴 없이 방에서 잘 가라는 인사를 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스님의 목소리에서 우리만 느낄 수 있는 스님의 따뜻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 해 여름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편지는 그날의 일로 오히려 미안함을 전하는 스님의 편지다. 안자하신 스님은 그때 우리에게 편히 쉬게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몇년 후 지족암으로 거처를 새로 정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이 서신을 주셨다.



일타 스님(오른쪽)과 대원성보살.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